

로봇 (Overweight)

한 페이지로 보는 탐방 노트

로봇 산업 포인트

주요 기업들의 탐방 노트를 정리. 1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으나, 성장하는 기업도 부각. 사업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등 미래를 지향하기 시작

로봇/방산/조선/항공 양승윤_02)368-6139_syang0901@eugenefn.com

로보티즈(108490.KQ)

- 1분기 흑자 전환, 고마진 액츄에이터의 로봇 외 양산 물량 확대도 긍정적
- AI 워커 수요 증가. 액츄에이터는 핑거용 개발 중. 가격 경쟁력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도 추진
- 국내 유일 로봇 수출株. 대기업 협력, 휴머노이드 등 첨단 기술 접점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

에스피지(058610.KQ)

- 1분기 이익률 개선, 미주向 제품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 덕분
- 정밀 감속기 사업 견조. 감속기 매출은 2년 연속 100% 성장 기대. 내년 감속기 비중 10% 전망
- 휴머노이드 액츄에이터 진출 추진, 글로벌 1위인 HDS와 동일 전략 채택

하이젠알앤엠(160190.KQ)

- 1분기 적자 전환, 건설용 범용모터 부진 지속 여파
- 로봇 액츄에이터 CAPA 선제 투자, AMR·4족·휴머노이드까지 타깃 확대
- 기대감 높은 QDD 개발 및 미·중 분쟁 속 부품 공급망 대체 수혜 가능성 주목

씨메스(475400.KQ)

- 1분기 적자 확대, 물류사와 프로젝트 지연되나 범위는 확대 중
- 피스피킹 외 팔레타이징 등으로 사업 확장 기대, 렌탈 서비스도 개시
- 비전·AI·모션제어 코어 기술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적용 추진 중

엔젤로보틱스(455900.KQ)

- 1분기 플랫폼 성장, 적자 확대 기조
- 동남아·홍콩 진출 및 국방·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사업 전개. 더해질 매출들에 주목
- 사용자 보행 의도 인식, 모션제어 기술 잠재력 큼.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주목

뉴로메카(348340.KQ)

- 1분기 매출 감소, 판관비 효율화로 손실은 축소
- 포스코 자동화 프로젝트 참여 및 조선 용접 로봇 확장 기대, 양팔 로봇도 개발 중
- 올해는 손익 개선에 집중, 주요 수주 여부 관련

두산로보틱스(454910.KS)

- 1분기 매출 급감 및 적자 확대, 관세·수요 불확실성 여전
- AI/SW 결합 솔루션 확대, 프랙티컬 휴머노이드 개발 인력 채용 진행
- HW 제조에서 지능형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 추진에 주목

도표 1. 주요 기업 탐방 NOTE

기업명	주요 내용
<p>로보티즈 (10849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102억원(+23%yoy), 영업손익 8억원(흑자전환yoy) 기록. 이익률 높은 액츄에이터 사업 호조. 로봇 외 분야로의 양산 전환 물량도 실적 성장에 기여 신규 출시한 AI 워커가 LG전자 초도물량 납품 외 후속 물량, 그리고 기타 기업/연구기관으로 수요처 다수 확보되고 있음. 올해 100대 납품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액츄에이터는 핸드에 들어가는 핑거용 액츄에이터 준비 중. 액츄에이터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염두해 선제적으로 중앙아 생산 거점 확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통해 방어 가능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유지. (1) 로봇 개발 확대 속 최대 수혜 기업이자, (2) 수출 비중 80%로 한국의 유일한 로봇 수출주이며, (3) 흑자 구간 진입하고, (4) 휴머노이드 및 피지컬 AI에 기술적 접점을 갖고, (4) 대기업(LG)과의 관계성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
<p>에스피지 (05861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934억원(-5%yoy), 영업손익 41억원(+33%yoy, OPM 4.4%). 매출 소폭 감소했으나, 이익률 높은 미주 아이템 매출 증가와 원재료 비효율성 제거로 손익은 개선. 25년은 매출액 4천억 소폭 미달하고, OPM 눈높이는 미드싱글 수준이라는 사측 가이드. 26년 매출 4,500억, OPM 6% 이상 전망 시장이 주목하는 정밀 감속기 사업 정상 진행 중. 레인보우로보틱스 향 RB 시리즈 및 RBY-1, RBQ 감속기 물량 확대. 협동로봇 부진해도 관철 수 많은 RBY-1 수요가 부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함. 이 외에도 신규 고객 확보(유일로보틱스 등), 사족보행로봇 대상 공급 확대(에이딘로보틱스, 고스트로보틱스 등), 오버홀 시장 진출(해외 산업용 로봇 가속기 교체), 반도체 OHT 및 미국 공작기계 향 물량이 깔리기 시작. 작년 감속기 매출 105억원, 올해와 내년 100%씩 성장 전망.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 확대되어, 26년 10% 수준 전망 기대하는 것은 감속기 코어 기술을 토대로 한 휴머노이드 향 액츄에이터 분야로의 확장. 일본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도 부상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단순 하모닉드라이브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닌, 로봇 제조사와 기술 개발 협력 통한 감속기 및 액츄에이터 개발로 영역 확장을 추진 중. 동일한 방향으로 확인
<p>하이젠알앤엠 (16019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182억원(-6%yoy), 영업손익 -24억원(적자전환yoy). 캐시카우였던 건설용 범용모터 실적이 건설 경기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 계속. 신사업인 로봇, EV 분야는 아직 적자 기초 올해 120억원 투자해 로봇 액츄에이터 라인 확보 추진. 연 300~400억원 규모의 CAPA. 2025년 말 완공 예정. 단기적으로는 협동로봇, AMR, 4족보행로봇 향 매출 기대. 휴머노이드는 중장기 관점 대응. 국내 주요 로봇 업체들과 컨택 및 테스트, 해외 전시회(오토메이트 등) 참여 통한 마케팅 진행 중 로봇 개화를 바라본 선제적 CAPA 투자. 향후 미·중 분쟁 속 로봇 부품 공급망 전환 수혜 기회는 계속. 휴머노이드 개화 속 부상하는 QDD 액츄에이터 개발 진행 중인 점, 글로벌 로봇 기업과의 OEM 사업 협력 가능성 주목
<p>씨메스 (47540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9억원(-8%yoy), 영업손익 -53억원(적자확대yoy) 주요 물류업체와의 확대 전개 일정 딜레이 되는 중. 하지만 이는 시장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워크 스코프 확대 및 추가 개발 영향으로 파악. 오히려 초기 논의보다 영역 넓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피스피킹에서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으로 확장 기대 기대하는 바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경험과 솔루션을 토대로 타 물류업체로의 확대 전개 가능성. 최근 AJ네트웍스와 렌탈 서비스도 개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형 업체로 확대. 물류 외 배터리, 메디컬, F&B로의 업종 다변화도 지속 추진. 비전, AI, 모션 제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적용을 시도. 레인보우로보틱스, KETI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개발에도 참여 중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주요 기업 탐방 NOTE(2)

기업명	주요 내용
<p>엔젤로보틱스 (45590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107억원(+4%yoy), 영업손익 -25억원(적자확대yoy). 전년비 플랫폼 실적 해외 진출의 경우 엔젤렉스의 태국 및 말레이 등 동남아과 홍콩 진출 지속 추진 중. 인증 획득 후 계약 체결 기대. LIG넥스원과 시제품 제작 계약 수주하며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력 추진하고, 엔젤 슈트(엉덩이 관절 보조)는 2월 의료기기 2등급 인증 획득 후 출시 준비 중. 슈트는 초기에 병원을 타겟하나, 향후 B2C 일상생활 보조용으로 확장성 보유. 신제품 출시 통한 매출 성장 기대. 추가로 의료 정상화도 실적 개선 모멘텀 중 하나 동사의 강점은 결국 사용자 의도 파악과 제어 기술. 인체 가상 모델링을 통해 AI 기반으로 행동 의도 파악하는 기술 관심. 현재는 의료 중심이나, 하지 보행 기술 및 보행 데이터, 그리고 부품 내재화 및 경량화 기술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등 확장 여부에 주목. 동사는 산업부 주관 K-휴머노이드 연합의 휴머노이드 HW 기업으로 참여 중
<p>뉴로메카 (348340.K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32억원(-13%yoy), 영업손익 -40억원(적자축소yoy). 전방 경기 악화로 매출 성장은 정체. 고객들의 설비투자 수요 위축 영향. 인건비 및 개발비 등 판관비 효율화 통해 손실은 축소 기대하는 것은 포스코 관련 공정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와 조선 용접 로봇 수주 확대. 조선 용접은 확장성 위해 크레인형에서 도수형으로 경량화. HD현대삼호중공업 외 타 국내외 조선소에도 확장 추진. 기술 트렌드에 맞게 양팔형 로봇 개발 추진. 공개 시기는 미정이나 시제 개발 중 올해는 탐라인 성장만큼이나 손익 개선에 주력. 포스코 수주 등 기대해볼 필요
<p>두산로보틱스 (454910.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매출액 53억원(-52%yoy), 영업손익 -121억원(적자확대yoy). 최근 관세 분쟁 등 전방 수요 불확실성 계속되는 중. 2분기도 실적 흐름은 부진할 전망. 참고로 연초 가이던스는 대수 기준 22% 성장을 제시 단순 Arm 판매 구조에서 AI/SW를 결합한 솔루션으로의 확대, 그리고 장기적 목표로 프랙티컬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 현재 휴머노이드 개발 R&D 인력 채용 진행 중. 이 외 북미 영업/마케팅 인력도 확충. 전년비 인력 25% 증가 전망. 단기 인건비 상승 불가피하나, 27년 이후를 바라본 투자. 하반기에는 SW/SI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과도 기대 본업 외 In-organic 성장과 미래 전략 재정비 통한 체질 변화 성과에 주목. 단순 HW 제조 기업이 아닌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구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3.31 기준)